

마음을 담아 개발 회고하기

소개

저는 3년 전부터, 작게 매일 아침 출근 전 개발스터디를 해왔습니다.

하나의 스터디를 습관처럼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'가끔, 많이'가 아니라 '조금씩, 매일' 그리고 '함께'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습관이 되려면 부담을 줄이고 꾸준히 할 수 있어야합니다. 그리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의 존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

- 이번 스터디는 서로를 도와 회고합니다.
- 회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드백입니다. 즐겁게 개발하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조금씩 방향을 수정해나가면서 개선하고 학습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.
- 2주동안의 개발 회고를 나누고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떻게 생각이 변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.
- 스터디 기록을 공개로 남기고, 외부 발표를 진행합니다. 더 많은 사람들과 시행착오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.
- 부담없이 스터디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대신 모든 스터디에 꼭 참석해주세요.
- 스터디를 기획하는데 영향을 받은 책은 아래와 같습니다. 읽지 않으셨어도 스터디 참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. 여러분이 인상깊게 읽은 책도 알고 싶어요 :)
 - 실용주의 프로그래머(앤드류 헛트, 데이비드 토머스 공저)
 - 애자일 회고(애스더 더비, 다이애나 라센 공저)
 - 함께 자라기(김창준 저)

진행 방법

- 스터디에서 함께 지킬 것 : 회고를 솔직하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려면 서로에게 신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렵겠지만 지키려고 함께 노력해보아요.
 - 다른 사람과 나 스스로를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- 말한 만큼 귀기울여 들겠습니다.
 - 쉽게 판단내리지 않겠습니다.
 - 함부로 조언을 건네지 않겠습니다.
- 구성
 - 매일/격일 스스로 회고
 - 회고 공유(50분)
 - 2주간 자유롭게 개발 관련된 회고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. TIL 공유도 좋습니다.
 - 라이트닝토크(50분)
 - 2주동안 배운 개발 토픽 중 하나를 정리합니다. 40분동안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가능한 자료로 만들어 업로드합니다(Github, blog, notion,...). 미리 발표자료를 만들어와도 됩니다.
 -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5분동안 라이트닝 토크합니다.
 -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배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.
 - 스터디 마무리 회고(10분)
 - 외부 발표 1회 이상 진행
 - 스터디 기간 내에 외부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합니다.
 - 스터디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.
- 참고
 - 매일/격일 스스로 회고 추천방식
 - 매일 또는 격일로 짧은 주기로 회고를 진행합니다.
 - 일일/격일 회고를 모아 일주일의 어땠는지 돌아보는 '일주일 회고'를 진행합니다.
 - 회고 형식:
 - 5Fs
 - 사실 Facts
 - 느낌 Feeling
 - 배운 점 Finding
 - 미래의 행동계획 Future
 - 피드백 Feedback
 - KPT(Keep, Problem, Try)
 - [Retrospective method KPT - Code Artisan](#)
 - 그 외 선호하는 회고 방법을 추천해주시면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